

DHL코리아

DHL, 부산 영화제 8년 연속 공식 운송



-61개국 245편의 영화제 필름 안전 운송 담당

DHL코리아(www.dhl.co.kr, 대표 배광우)가 지난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 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운송업체로 선정되어 영화제 출품작품의 안전한 운송을 담당했다.

전세계 230개국 12만여 도시에 구축된 자체 운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60개국에서 출품한 244편의 영화필름의 운송, 통관업무와 행사 후, 각국으로의 반송업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

1회부터 현재까지 8년 연속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운송업체로 활약해 오고 있는 DHL은,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화필름 안전 운송은 물론, 스폰서 활동도 병행해 오고 있다.

영화제 필름 운송을 위해서는 각 국의 통관규정과 법률을 숙지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필름의 실시간 위치추적 및 조화가 필수적 요소로 신속, 정확함이 요구되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DHL 코리아 관계자는 "그 동안 각종 국제 영화제 공식 스폰서와 운송 경험을 바탕으로 DHL은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부산 영화제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HL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국제영화제 공식 운송업체 및 스폰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FedEx

FedEx, Ship More 캠페인 실시



-10월1일에서 11월 30일까지 두 달 간 시행

-고객에게 특별할인 혜택 및 다양한 경품 제공

FedEx(www.fedex.com/kr, 대표이사: 데이빗 카든)는 국제화물 이용 고객의 FedEx 이용을 장려하고자 'FedEx Ship More 캠페인'을 실시한다.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FedEx Ship More 캠페인은 FedEx의 해외운송(국내에서 국외/국외에서 국내 모두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고 운임을 한국에서 지불하는 고객 중 총 운송화물이 10kg을 넘을 경우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고객이 11월말까지 보내는 화물의 총 중량이 10kg 이상의 화물은 FedEx 알람시계, FedEx 컵, FedEx 트럭 장난감과 핸드폰 고리 중 고객이 선택하는 하나를 제공하며, 50kg-100kg미만의 화물은 5만원 백화점 상품권 제공 또는 전 지역 15% 할인혜택을, 100kg 이상의 화물은 7만원 백화점 상품권 제공 또는 전 지역 2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단, 할인혜택은 캠페인 기간 후인200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보내는 화물에 대해 제공하게 된다.)

FedEx Ship More 캠페인의 특별할인 혜택과 경품혜택을 받으려면 기존FedEx 이용고객 역시 별도로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신청은 FedEx Ship More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Fax(02-3424-4650) 신청, 또는 FedEx 고객관리부 (080-023-8000/02-333-8000)문의 하면 된다.



SK(주) 내트럭

SK(주) 내트럭, 화물차 운전자 위한 복합화물정보 센터 설립



- 대전 3.4공단내에 3,000평 규모의 '내트럭정보센터' 설립
국내 최초로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복합화물정보센터가 탄생했다.

SK(주) 내트럭은 대전지역 가맹점인 진성통운(대표 김진배)과의 제휴를 통해 대전 3.4공단내에 3,000평 규모의 '내트럭정보센터'를 설립,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화물정보망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와는 차별화하여 Off-line 대형운송사와 On-line 화물정보망을 결합하는 새로운 타입의 화물정보센터다.

그동안 화물정보를 받기 위해 새우잠을 청하며 장시간 기다렸던 운전자들이 수면실, 샤워실, 식당, 휴게실, 차량정비센터 등의 전용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서, 화주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SK(주)는 전국 광역 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복합화물정보 센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인천공항, 국제물류교환센터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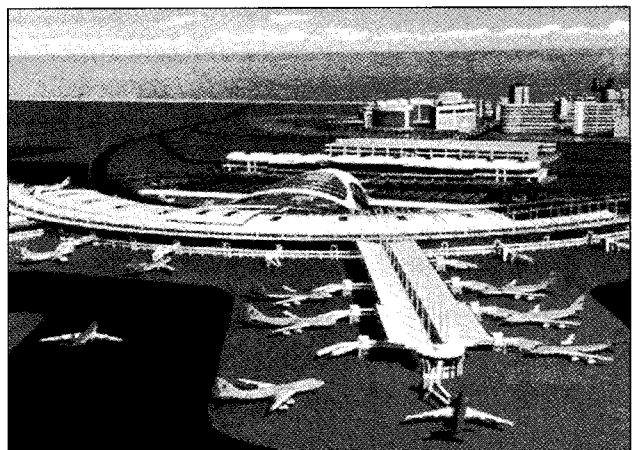
-PDA·디지털 가전 등 IT업체 중심 물류제휴
-델타 주문생산형 모델 도입, 국제특송 시장 확대 전망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007년까지 50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에 8천300평 규모의 국제물류 교환센터를 건설한다.

국제물류 교환센터는 컴퓨터와 디지털 가전 등 IT(정보기술)업체의 부품공급과 수출 전조기지로 국제운송, 보관 및 화물 추적조회 등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 2위 PC 제조업체인 미국 델(Dell)사가 주문생산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페덱스(FedEx)의 국제 특송서비스 및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국제물류 제휴 사례를 들어, 중국과 멕시코 등으로 생산라인 해외 이전을 추진중인 국내 컴퓨터업체들과 제휴, 국제물류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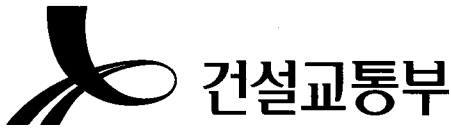
이올러 PDA(개인휴대단말기)와 디지털 가전 등 IT업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물류제휴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미국 DHL사도 2007년까지 인천공항에 240억원을 투입, 6천800평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라며 "국내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델사의 주문생산형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경우 국제특송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한·카타르간 항공노선 개설합의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30일 양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한·카타르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항공노선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난 4월 체결된 양국간 항공협정의 후속조치로 열린 이번회담에서 양측 항공당국은 운항횟수를 주2회로 설정하고 양국 항공사간 편명공유운항(Code-share) 규정에도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노선에 관심을 보여온 카타르항공(Qatar Airway)이 이번 회담에서 카타르측의 운항사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 10월말부터 인천공항에 신규 취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중동지역의 거점을 지향하고 있는 카타르에 노선을 개설함에 따라 한국과 중동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대택배

현대택배, 상하이 현지법인 오픈식



현대택배(<http://www.hyundaiexpress.com>, 대표:강명구)는 지난 9월 17일 중국 현지에서 강명구(姜明求) 회장과 강지웅(張志雄) 동방그룹회장, 유금병(劉錦屏) 중국 외경무부 부처장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해 현대이륜 국제화운유한공사(上海現代亞輪國際貨運有限公司)'의 개업식을 가졌다.

현대이륜은 지난 7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정식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연간 예상 매출은 2천만불 규모로 2007년까지 1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종합물류회사이다.

현대택배 강명구 회장은 개업식 축사를 통해 "현대이륜이 한·중 양국간 상호 신뢰속에 한층 심화된 형태의 경제협력 및 상호발전에 기여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최상의 물류서비스 제공은 물론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택배는 현재 심천·청도 등에 지사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국내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하이항(港)의 올해 예상 물동량은 850만TEU로 중국 전체 물동량의 3분의1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3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택배의 관계자는 "상해 현대이륜의 물량을 향후 20만TEU로 늘리고, 중국내 주요지역에 지사설립을 통하여 10만TEU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중국 골자의 종합물류회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스(주)
글로벌비스(주), GOALS 개발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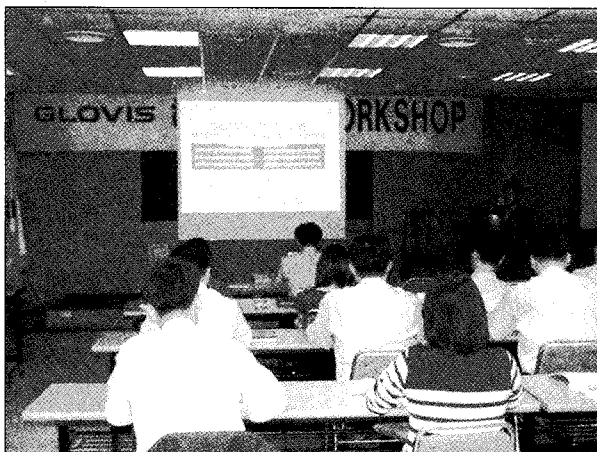
GLOVIS

글로벌비스(주)는 지난 9월 19에서 20일 이틀간 신 수출입물류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약 6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04년 4월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 수출입물류시스템은 GOALS(Gloviss Oversea Logistics System)로 명명 될 계획이다.

GOALS는 해외시장 다변화와 물동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시스템의 애로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더불어 수출입 물류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가시성을 제고하며, 선적, 화물추적, 수출입 신고, 운임정산 등 수출입물류업무 프로세스 진행 전체를 선사, 항공사, 세관 등 다양한 파트너 및 고객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Web Base의 최신 IT 플랫폼에 기반해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전자무역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전자무역플랫폼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비스는 이를 통해 국제물류업계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사에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수출입 토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택배
"한진택배" 서비스혁신 캠페인 실시

韓進

한진택배(대표이사 김인진)가 택배시장 리딩기업으로써의 면모를 확고히 하기 위한 택배서비스 혁신캠페인을 실시한다.

한진택배가 서비스 혁신을 선언하며 나선 것은, TV홈쇼핑과 인터넷 열풍 등에 힘입어 매년30% 이상의 고성장을 해온 택배사업이 소비시장 침체로 인해 성장율이 둔화될 뿐만아니라 쉽사리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직원교육을 통한 서비스차별화만이 유일한 성장 동력이라는 확신에 따른 것이다.

우선 10월23일 부터 금년말까지 1차 택배서비스 혁신캠페인을 갖기로 하고 한진택배 전지점에서 캠페인 선포식을 실시했다. 매일 업무개시전 전 직원 서비스조화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캠페인 과제부여 및 평가를 통해 우수지점과 불량지점에 대한 신상평벌을 강화하며, 배송직원에 대한 전문서비스 강사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고객의 추천으로 선정된 서비스 우수직원은 '서비스 스타' 라는 칭호와 함께 새로 제정된 '한진택배 서비스 명예의 전당'에 오를 후보로 등록시켜 고객서비스향상의 전경자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한진택배는 대전시 유성구 대전 종합유통단지내에 15,000여평규모의 최신 화물자동분류기(Auto Sorter) 2 Line이 설치된 최대 택배터미널 신축에 박차를 가하고, 수도권 서북부지역에 신규 물류터미널 신축, 기존 하남터미널과 분당터미널 증축을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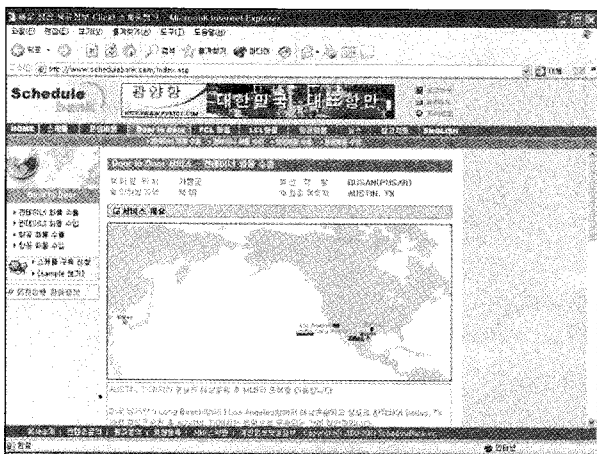


㈜스케줄뱅크
스케줄뱅크, 무역협회 수출입물류 사이트 개편 공
식업체 계약



온라인 물류 정보제공기업 ㈜스케줄뱅크(대표 : 손상목)는 지난 10월 13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로부터 2003년도 동북아 물류실 사이트(<http://shippersgate.kita.net>)개편 및 콘텐츠 보강 사업의 주도 기업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사이트 개편작업 외에 스케줄뱅크 핵심 콘텐츠들을 무역협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스케줄뱅크에 따르면 무역협회 동북아 물류실 사이트 개편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들은 그간 물류서비스 정보가 공급자 중심으로 치우침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인 화주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수요자가 직접 투명한 서비스 정보를 통해 객관적으로 공급업체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동북아 물류실 사이트 개편에서 스케줄뱅크는 기존의 정기선 및 항공스케줄 이외에 ▲ Door to Door 운송정보 ▲ 최적 운송사 찾기 ▲항로별 실적분석 등 핵심 콘텐츠를 무역협회에 독점 제공하는 이외에 무역협회 사이트 개편작업의 주무 계약업체로서 참여하게 된다. 스케줄뱅크 손상목 사장은 "물류서비스 정보는 이제 제공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최근 급격한 전자무역환경으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물류서비스 정보도 무역거래의 초기부터 필요로 하게 됐고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가는 수출입 물류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수출입 물류 서비스 정보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로지스 택배서비스 수도권센터 오픈
KT로지스 택배서비스 수도권센터 오픈



KT로지스는 지난 22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KT로지스택배서비스 수도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우태주 경기도의회의원을 비롯 이철한 KT통신상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태준 KT로지스(주)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한국택배를 인수하면서 숙원사업이었던 수도권 물류센터를 개소하고 본사를 확장 이전하게 된 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도권센터 오픈을 계기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명실상부한 물류정보화 전문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로 설치한 물동량배송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도 가졌다. KT로지스 수도권센터는 대지2,500여평에 5톤~11톤 화물차 60대를 동시에 접안 시킬 수 있는 700평규모의 도크를 갖추고 있으며 2층 600여평은 물류창고와 2억원을 투입, 다단계식 전동상·하차기는 물론 최첨단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KT로지스의 한 관계자는 "충전에는 1일 10시간 기준 2,500~30,000여개의 물량밖에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5~6,000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